



# 봄이 오는 길목에서

— 풍작의 反經濟를 생각한다 —



김 영 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토끼의 해를 맞이하여 풍요의 상징인 돼지를 말하게 된 것은 봄이 오기도 전에 훈훈한 감이 든다. 지난 85년 5월 이래 오늘날까지 양돈산업은 나름대로의 호황을 누려 왔다. '83년의 진저리나는 불황을 생각할 때 언제까지나 이와같은 양돈경기가 계속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경기는 만 2년이 지나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다시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작년말보다 금년 하반기에는 돼지의 사육두수가 증가되고 따라서, 가격전망도 흐릴 것이라는 것이다. 그와같은 근거는 대체로 세 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첫째,** 돼지 값이 장기간 호황을 누림에 따라 지난해 연말 50만두이던 모돈수가 올 봄에는 56만두로 증가될 것이며, 금년 6월에는 총 사육두수가 3백 60만두를 훨씬 초과할 전망이다. 이 두수는 불황이었던 '83년 9월의 3백 72만두와 근접된 두수로서 돼지의 가격면에서도 두당 10만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둘째,** 소값이 계속 침체됨에 따라, 종래 소를 기르던 농가가 일부 돼지 사육쪽으로 전환되고 있음도 보조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올 7월 1일부터 대규모 양돈장의 사육두수를 규제한다는 사실도 기존 중소양돈가의 사육의욕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 돼지의 총 사육두수를 늘리는 쪽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세째,** 돼지 사육에 큰 변수로 작용하던 배합사료 가격이 계속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을뿐 아니라, 앞으로도 상당기간 안정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투기적인 양축과 자신을 빼놓고 전체의 양돈 흐름을 예측하는 것이다.

세계의 곡창적인 미국이 1932년 이래 최대의 곡물 재고를 지니고 있을뿐 아니라, 지난 반 년 사이 곡물 수출국들의 심한 경쟁으로 사료곡물의 국제가격은 약 40% 가량 하락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소한 2년 이내에는 반등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거 우리나라 양계·양돈의 경기는 사료곡물의 수입가격에 따라 크게 좌우되어 왔다. 국제 사료곡물의 가격이 앙등할 때에는 대체로 불황이었고, 반대로 하락 또는 안정세일 때는 호황이었다.

이와같은 여러가지 요인이 겹쳐 돼지의 사육두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우리 양돈가들이 다 같이 생각할 것은 두수가 늘어난 만큼 과연 돼지고기의 소비처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금년중에 예상되고 있는 총선거나 명년에 닥칠 올림픽을 겨냥한 소비확대를 예상할 수도 있으나, 우리는 이미 아시안 게임에서 경험했듯이, 국내외적 큰 행사가 돼지고기 소비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은 명백한 일이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 83년의 양돈불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83년 1월 당시의 돼지 사육두수는 모두 2백 80만두였다. 그것이 같은 해 6월에는 무려 36%가 증가된 3백 80만두로 증식되었다. 결과적으로 평소보다 2-3배나 되는 생돈의 홍수출하가 계속되고 생돈가격은 생산비도 건질 수 없게 폭락하였다. 돼지 값이 떨어지면 출하량은 더욱 늘게 마련이다. 성돈뿐 아니라 중돈까지도 출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격은 더욱 곤죽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와같은 홍수출하는 도축장의 가동능력을 넘어 생돈 체화가 2~3일씩 걸림으로써, 생산농가는 생돈의 생체 감량에서 오는 손실까지 감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돼지고기 값이 떨어졌다고 반드시 소비가 그만큼 느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소비가 정체하거나 81년의 돼지고기나 84년의 쇠고기에서와 같이 소비가 도리어 주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은 무엇이 생산과잉이거나 가격이 폭락하였다 하면 오히려 소비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가격은 더욱 폭락하게 된다. 83년 1월 돈육 600g당 2,800원이었던 것이 그 해 7월에는 43%가 떨어진 1,600원이었고, 8월 중순에는 지역에 따라 절반 값도 안되는 1,200원까지 떨어진 곳도 있었다.

이래서 「풍작의 反經濟」 현상은 더욱 심화되기 마련이다. 상업화 영농이 진전될수록 양축가들의 투기적 양축이 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경계하여야 할 것은 항상 자기를 빼놓고 전체의 흐름을 예측하는 것이다. 관측결과의 역작용이라고나 할까?

관측결과가 장차 사육두수 증가를 예보하게 되면 전체 양돈가가 두수증가를 삼가할 것이니, 자기만은 계속 증식시켜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간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관측결과를 한 바퀴 더 돌려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갈수록 관측결과의 적중률은 더욱 높아지기 마련이다.

불황일 때 정부가 가격조절에 개입하여 일부 수매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지만, 허다한 우리 경험에서 체험한 것처럼 정부의 가격조절사업이 최근의 한우가격에서 보는 것과 같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게 통례였다.

불황일 때 역올한 것은 같은 양돈가들 뿐이고, 그중에서도 경제기반이 튼튼치 않은 중소양축가들 뿐이다. ■